한·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 비교고찰

박옥련*
ylpark@ks.ac.kr
조선희**
gounder@lycos.co.kr
김소정***
dhdzld@nate.com

<目次>

1. 서론
2. 한 · 일 시대적 배경 및 장생문 발생
3. 한 · 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의 종류 및 형태
4. 한 · 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 비교고찰
5. 결론

主題語: 여자예복(formal dress of ladies), 장생문(longevity pattern), 보(bo), 흉배(hyungbae), 쥬니히토에(junihitoe), 우치카케(uchikake)

1. 서론

고대부터 장생문은 장수하고자 하는 염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에서 유래하여 한국과 일본에 전파되었다. 한국은 삼국시대에 도교사상의 신선사상[1)]이 유입되어 고려시대에는 도교를 통한 장생사상이 농후한 시기로[2)], 사회혼란 속에서 장생을 염원하는 것에 기반으로 하여 장생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일본은 나라시대에 당나라 신선사상과 백제의 불교문화가 들어와 의복제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고유의 민속신앙과 자연신앙과 융합되어 장생문이 발달하게 되었다.[3)] 이에 양국의 장생문은 장생과 관련된 식물, 동물 등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석사과정

1) 신선사상은 속세를 떠나서 선계에 살며 젊음을 유지한 채 장생불사한다는 신선의 존재를 믿고 그에 이르기를 바라며 추구하는 사상을 말한다.
2) 박옥련(2000)『한국전통복식문화사』형설출판사, pp.131-132
3) 박옥련·이행화·황정윤(2006)『일본복식과 문양』형성출판사, pp.30-33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1392-1897)는 사농공상이라는 엄격한 신분제도를 가진 시기로 계급에 따른 사회 제도적 차별 아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이 겹치며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해져갔다. 왜구의 침입과 사회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현세의 행복과 장수를 기원했고 이런 마음을 담아 장생문을 복식에 새겨 넣었다. 장생문이 나타난 예복은 원삼·활옷·당의·스란·대란치마가 있으며 보와 흉배에도 장생문이 나타난다. 원삼은 궁중에서 국가의 크고 작은 의식이 있을 때 입었던 예복으로 서민들은 혼례 때에 착용하였다. 활옷은 공·옹주와 서민들이 혼례때에 착용하였고 당의는 궁중의 소례복이었다.

에도시대(1603-1868)는 조선시대와 같이 엄격한 신분제도를 가진 시기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잦았는데 이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신사에서 기도를 하며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염원하였다. 예복을 장식하는 문양에도 장생의 염원이 나타나며, 예복의 종류에는 쥬니히토에(十二単), 우치카케(打掛)가 있다. 쥬니히토에는 공가(公家)의 여자예복으로 12겹을 중첩하여 입는다. 우치카케는 무가(武家)의 여자예복으로 색상과 문양이 다양하고 화려하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에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에 대해 알아보고 장생문의 종류, 형태, 색상 등을 비교하여 고찰하려 한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양국의 사회적 배경과 장생문이 발생한 배경, 복식에 나타난 장생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장생문에 관한 선행연구로 박옥련(1986)[4]은 십장생문양에 대해 유래, 상징성, 형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 김민경·박순천(2011), 이하정·이상은(2010), 심영옥(2004)의 연구[5]는 장생문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이나 조형특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에도시대의 문양에 관한 선행연구로 양지나(2010)[6]는 우키요에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형태, 색채 등을 분류하여 고찰하고 있으나 길상과 장생의 의미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심화진·윤혜성(2007)은 양국 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있다. 최선은(2002)[7]은 근세 한·일 복식의 미의식과 조형성에 대한 연구로 문양에 대한 형태, 색채

4) 박옥련(1986)「한국 십장생문양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민경·박순천(2011)「민화의 십장생도를 응용한 문화상품디자인 개발 연구」『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Vol.2011
이하정·이상은(2010)「조선후기 유물에 나타난 십장생문의 조형성 분석-자수품을 중심으로-」『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Vol.12 No.1
심영옥(2004)「십장생도에 내재된 長壽吉祥의 상직적 이미지 연구」『동양예술』 Vol.8
6) 양지나(2010)「에도시대 우키요에 복식에 표현된 문양과 색채」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심화진·윤혜성(2007)「한·일 전통복식에 표현된 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한복문화학회 학술대회
최선은(2002)「한국과 일본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비교-조선후기와 에도시대를 중심으로」『동양예술』 vol.6

등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해숙(2015)의 연구[8]에서는 근세 한·일 예복의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논문으로 문양의 상징성에 체계적인 고찰이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근세 한·일 복식의 문양에 대한 연구와 디자인 활용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양국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에 대한 비교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세 한·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의 복식과 소품에 다채로운 문양이 명맥을 이어 표현되고 있어 전통문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세 한・일 여자복식에 나타난 장생문의 비교를 위해 유물과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시기인 조선후기와 에도시대를 시대적 범위로 정한다.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의 연구자료는 국내외 단행본 및 논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였다. 특별히 조선시대의 것에 대해서는 유물, 그림 자료 등을 수집하여 예복 7점과 스란단·보·흉배 6점을, 에도시대의 것은 쥬니히토에 2점과 우치카케 10점을 살펴보았다.

2. 한 - 일 시대적 배경 및 장생문 발생

2.1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과 귀천이 결정된다는 유교사상을 따라 양반, 중인, 상인, 천인의 계급으로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계급 간에는 상호교류는 물론 혼인금지 등의 사회제도적 차별뿐만 아니라 복식의 종류, 색상, 소재 및 문양 등에도 차이를 두게 했다.

조선시대의 민생은 지배층의 당쟁과 계속되는 사화 속에 점차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으로 국토는 황폐해져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고 백성의 불안감은 커졌다. 왜구의 침입과 사회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현세의 행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커져갔고 이런 마음을 담아 길상문을 복식에 새겨 넣었다.

조선시대 많이 사용된 장생문은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는 도교사상의 신선설과 관련이 깊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도교를 통한 장생사상이 농후한 시기[9]로 신선사상

8) 강해숙(2015)「근세 한 일 예복에 나타난 문양을 활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박옥련(1986), 앞의 논문, p.9

의 불로장생을 위한 현세의 길복을 추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래 산다고 여겨지는 식물・동물・자연의 소재를 활용한 장생문이 나타났다.

고려 말 약 40여 년간에 걸친 원·몽고의 침략과 간섭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곤궁의 극에 달해 있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 고려인들의 정신세계에는 장생사상과 길흉화복에 대한 관념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다.[10] 이와 같은 염원이 깃든 장생문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갈수록 보편화된다. 조선후기는 장생문이 가장 보편화되었던 시기이다. 불변하고 오래 산다고 믿어지는 상징물로 동물문양은 학・거북・사슴이 있으며 식물문양은 소나무・불로초가 있고 자연물문양은 해・구름・물・돌・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대나무・복숭아・나비・고양이・매화 등이 장생문으로 사용되었다.[11] 이와 같은 장생문은 장신구나 생활용품에 많이 나타난다. 의복의 경우에는 주로 궁중예복에 나타나는데 장수와 길상의 염원과 함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복식을 치장했다.

2.2 에도시대

에도시대는 세키가하라 전투(関が原の戦)의 승리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3-1616)가 에도에 막부를 개설한 1603년부터 15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요시노부(慶喜)가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 1868년까지의 봉건시대를 말한다.

에도시대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엄격한 신분제도와 정치세력 간의 균형을 위한 막번체제[12]라는 정치체제를 확립하였다. 쇼군은 산킨고타이(參勤交代)제도를 만들어 다이묘(大名)를 1년마다 교대로 에도에 있는 막부의 성으로 불러들여 지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봉건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제도로 각 지역과 에도를 잇는 도로가 발달되어 수륙교통과 도시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상업 발달도 촉진시켰다. 이로 인해 부유한 조닌계층이 나타난다.

조닌계층은 풍족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향락적이고 즉흥적인 유리(遊里)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유리문화의 조성은 복식의 발달로 이어져 화려함과 과시의 풍조가 나타난다.[13] 이로 인해 의상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서로 경쟁하는 '의상경쟁'이

10) 박옥련(2000), 앞의 책, p.132
11) 서지민(2013)「수복기원(壽福祈願)의 의미해석을 형상화한 장신구 조형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12) 막번체제는 중앙통일정권인 에도 막부와 그 지배하에 있으면서 독립된 영국(領國)을 갖는 번을 통치기관으로 하는 정치체제로 영주가 직접 생산자인 혼뱌쿠소(本百姓)로부터 쌀을 주로 하는 현물(年貢)을 고쿠다카(石高)를 기준으로 해 마을을 통해 착취하는 사회적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나타나 복식은 점점 화려해지고 고급화된다. 이로 인해 문양은 더욱 다양한 형태와 기법, 구성 등이 나타나며 발달한다. 에도시대 여자예복을 장식한 문양은 자연문양, 동·식물문양, 기하학문양, 생활용품문양 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양에는 상징성과 계절감각, 소설의 주제 등 일본 고유의 사상이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민속신앙과 자연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조상과 자연 등을 숭배하는 고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리상으로 지진과 화산,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많아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 나라시대에는 당나라 신선사상과 백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점차 장생문이 발달하게 된다. 장생을 기원하는 동물문양은 학·거북·나비가 있고 식물문양은 복숭아·국화·매화·귤이 있으며 자연문양은 구름·바위·청해파(青海波) 등이 있다. 특히 중국에서 세한삼우(歲寒三友)라 불리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는 송죽매(宋竹梅)라고하며 일본에서는 경사와 행운,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쓰였다.[14] 송죽매문은 무가의 여자예복인 우치카케에 주로 사용되어 근엄하고 화려함을 더하였다. 특히 에도시대에는 유리문화의 발달로 여자예복의 장생문은 장생의 염원보다는 부의 과시, 장식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 듯 하다. 이로 인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예복이 나타나게 된다.

3. 한 - 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의 종류 및 형태

3.1 조선시대

조선시대 여자복식 중 장생문이 나타난 복식은 예복이 대부분이고 평상복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유교의 영향에 의해 문양의 사용이 신분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1 예복에 나타난 장생문

조선시대 여자예복은 궁중을 중심으로 내·외명부에게 적용되고 사대부가에 전파되었다. 예복은 궁중 가례시에 왕족과 사대부들만 착용하였고 서민은 혼례 시에 활옷·원삼(圓衫) 등을

13) 여승화(2015)「현대 의상에 나타난 에도 복식 연구」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
14) 강해숙(2015), 앞의 논문, p.32

착용할 수 있었다. 여자예복 중 장생문이 나타나는 예복은 원삼·활옷·당의·대란(大襴)치마·스란(膝襴)치마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장생문으로 장식된 보(補)와 흉배(胸背)가 있다.

원삼은 비·빈의 소례복이고 내외명부의 대례복으로 조선후기까지 착용되었다.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문양과 색상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형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1>은 원삼의 종류와 장생문의 형태를 정리한 것으로 왕비가 착용한 홍원삼에 나타난 구름문은 바람에 불리어 날아가는 형태로 비상하는 봉황문과 함께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구름의 변화무쌍함과 신비로움은 신과 결부시켜 장생의 의미를 가진다.[15] 자적원삼은 빈이 입었으며 수(壽)·복(福)·석류·화문의 복합문을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수·복문은 문자 그대로 장수와 복을 뜻하며 수·복자 문들은 대체로 장방형으로 도안된 곽 속에 넣어 장식하는데 장수자(長壽字), 장복자(長福字)라 한다.[16] <표 1>의 자적원삼에 나타난 수·복문은 장수자와 장복자 형태로 일정한 간격으로 금박하여 화려하고 단아하게 표현되어 있다. 녹원삼은 공·옹주의 대례복으로 <표 1>의 녹원삼은 덕온공주(1822-1844)의 것으로 수·복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금박하여 장식하였다.

<표 1> 원삼의 종류와 장생문의 형태

	홍원삼	자적원삼	녹원삼
형태			
문양 확대			
문양	봉황·구름	壽·福·석류·화문	壽·福
출처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Ⅱ』 p.13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Ⅱ』 p.13	http://museum.dankook.ac.kr/

15) 박옥련(2000), 앞의 책, pp.146-150
16) 박옥련(2000), 위의 책, p.66

활옷은 공·옹주의 대례복이며 민가에서는 혼례복으로 착용하였다. 원삼과 형태는 유사하나 다홍색의 비단에 수복장수(壽福長壽)를 뜻하는 문양과 길상문을 화려하게 자수를 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 복온공주 활옷 <그림 1-1> 원앙문금박도장 <그림 1-2> 활옷 뒷길
출처 :『활옷, 그 아름다움의 비밀』pp.109-110

<그림 1>은 복온공주(1818-1832)의 활옷으로 붉은색 공단(貢緞)을 사용하여 복합문양을 비대칭구도로 장식하였다. 장생문인 구름·수파·나비문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수(水)는 생명의 절대적인 요소로써 신성한 생명의 영원성의 의미를 가진다.[17] 수파문은 바탕문양으로 주로 사용되며 반원형 오색파도를 거듭한 형태나 물방울이 부서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나비문은 아름다움과 행복의 상징이며, 중국식으로 접(蝶)의 발음이 질(耋)의 발음과 유사하여 장수의 의미를 가진다.[18] 앞길에는 <그림 1-1>과 같이 구름·수파·원앙문을 원형 안에 넣어 금박으로 찍어 장식하였다. 원앙문을 주문양으로 구름·수파문을 부문양으로 장식하였으며 구름문은 중심의 꽃구름형태[19]와 주변의 바람구름형태[20]로 나타났다. 수파문은 파도치는 형태로 물이

17) 박옥련(1986), 앞의 논문, p.29
18) 『예기(禮記)』에 '인생 70을 모라 하고 80을 질이라 하고.. (人生七十曰耄 八十曰 耋...)'라 하여 '질'은 장수를 뜻함. 출처-허균(2002)『전통문양』대원사, p.48
19)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구름형상으로 꽃구름이라 한다. 꽃구름은 대체로 오금나선형이 한데 엉킨 형태이다. 출처-『한국 전통 문양집』p.28
20) 바람에 날아가는 구름형상으로 대개 구름 머리는 다소 도식화되어 표현하고 꼬리 부분은 바람에 날리어

튀는 것을 묘사하여 생동감을 준다. 뒷길에는 나비문이 흰색·파란색·검은색으로 수놓아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장생의 의미를 지닌 복숭아·매화가 나타나며 복숭아문은 천도문(天桃紋)이라고 하여 삼천년 만에 꽃이 피고 삼천년 만에 열매를 맺으며 이를 먹고 장수하였다고 전해져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를 지닌다.21) 매화문은 겨울이 되어 잎이 지고나면 다음해 다시 꽃이 피는 속성에 연유하여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다.22) 복숭아와 매화문은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붉은색·초록색·주황색·노란색·흰색·검정색 등으로 자수를 놓아 표현하였다.

<그림 2>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활옷
출처 :『활옷, 그 아름다움의 비밀』p.131

<그림 2-1> 앞길

<그림 2-2> 뒷길 하단

<그림 2-3> 뒷길 상단

http://masterpieces.asemus.museum

<그림 2>의 활옷은 서민계층이 혼례식에 사용한 활옷이다. 장생문으로 복숭아·나비·수

나부끼는 형태이다. 출처-『한국 전통 문양집』p.46

21) 박옥련(2000), 앞의 책, pp.54-55

22) 박옥련(2000), 위의 책, p.43

파·바위문이 사용되었다. 바위문은 암석의 불변성과 생명성, 신과의 교통사상(交通思想)으로 인해 장생의 의미를 지닌다.[23] 복숭아문은 <그림 2-3>에서 나뭇가지에 복숭아가 달려있는 형태로 흰색과 붉은색을 자련수기법[24]으로 표현하였다. 나비문은 위·아래로 대칭된 형태의 두 마리와 위를 향해있는 한 마리의 나비로 나타난다. 날개는 노란색·파란색 계열을 사용하여 장식하고 몸통의 가장자리를 금사로 징금수[25]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수파·바위문은 <그림 2-1, 2>와 같이 앞·뒷길, 소매, 한삼의 하단에 나타난다. 수파문은 반원형의 형태로 다양한 색상으로 수를 놓아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바위문은 푸른색과 흰색을 자련수기법으로 장식했다.

당의는 소례복으로 간편하면서 형태가 아름다운 옷으로 비빈의 당의에는 수·복자 등을 직금하거나 금박하였으며 가슴·등·어깨에 보를 달았지만 그 외에는 민당의를 입었다.

<그림 3> 덕온공주 당의 <그림 4> 부금수복당의(付金壽福唐衣)

출처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황실복식의 품위』p.53

<그림 3>는 덕온공주의 당의로 금실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인 수·복문을 직금하여 단아하

23) 박옥련(2000), 위의 책, p.44

24)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명암을 살려 자연스러운 변화를 표현하는데 이용되는 기법으로 바늘땀을 불규칙적이고 기고 짧게 뜨면서 면을 메워 표현한다. 출처-『자수문양』

25) 금사, 은사 같은 다른 가는 실로 징그어 줌으로써 바늘귀에 꿰어지지 않는 굵은 실이나 면적이 있는 띠 등을 천 위에 고정시키는 기법이다. 출처-『자수문양』p.389

면서 우아하게 장식하였다. <그림 4>의 부금수복 당의는 수·복문을 주문양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인 배열의 대칭구도를 이루고 있다. 부금수복당의는 덕온공주당의와 달리 수·복문이 둥글게 나타나 아기자기한 느낌을 준다.

스란·대란치마는 스란단을 치마의 하단에 부착하는 구성이다. 스란단은 금직이나 금박기법으로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문양을 달리했다. 왕비는 용문, 세자빈은 봉황문, 공·옹주는 화문과 글자문을 사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포도동자문도 나타난다. 스란단을 한층 붙인 치마를 스란치마라 하여 소례복으로 착용하였고 두 층을 붙인 것을 대란치마라고 하여 대례복에 착용하였다.

<그림 5> 봉황 · 구름문
출처 :『朝鮮朝後期 宮中服飾』p.95

<그림 6> 복숭아·불로초·매화· 수·복문
출처 :『황실의 품위』p.65

<그림 5>의 스란단은 봉황과 구름문으로 장식하였다. 구름문은 부문양으로 대칭 구도를 이루며 봉황을 둘러싸고 있다. 형태는 초화구름·완자구름·꽃구름 형태로 금박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림 6>의 오른쪽 스란단에는 복숭아·매화·불로초문이 나타난다. 복숭아문은 단순한 형태로 열매, 줄기를 표현하였고 불로초문도 복숭아문과 같이 단순한 형태로 장식하였다. 매화문은 5개 꽃잎과 줄기, 잎사귀로 표현했다. 왼쪽의 수·복문은 부문양으로 장수자와 장복자의 형태로 반듯하고 정갈하게 일정한 간격을 가진다. 이와 같이 금박·금직에 나타난 장생문은 간단한 형태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보는 원의 형태로 비·빈의 적의·원삼의 가슴·등이나 당의의 가슴·등·양어깨에 부착했다. 주로 용문을 주문양으로 장생문이 있는 보는 여성용으로 반드시 구름과 장생문을 오색실로 수놓아 남성용과 구분하였다.[26] 흉배는 네모난 형태로 가슴과 등에 붙였으며 비빈, 공·옹주, 내외명부의 원삼·노의 등에 부착했다.

26) 김영숙(2004)『한국복식문화사전』미술문화, pp.204-205

<그림 7> 오조룡보 <그림 8> 왕비의 흉배 <그림 9> 봉황흉배 <그림 10> 쌍학흉배

출처 : 『胸背』 p.28,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Ⅱ』 p.35, 『胸背』 p.29, p.31

<그림 7>의 보는 용문을 중심으로 구름·산·수파문이 둘러싸고 있으며 오색실과 금사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장생문으로 구름·산·수파문이 장식되어있다. 구름문은 오색실을 사용하여 구름형태로 수놓고 가장자리를 금사로 징금수를 둘렀다. 산문은 삼산(三山)의 형태이며 높은 산은 하늘과 닿아 신과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 불로장생(不老長生) 할 수 있다고 믿었다.[27] 오색실로 수를 놓은 후 가장자리를 금사로 징금수를 놓아 장식했다. 수파문은 반원형·파도·물방울의 형태로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오색으로 배색하여 수를 놓았고 가장자리마다 금사로 징금수를 둘렀다. <그림 8>의 흉배는 복합문양으로 봉황·구름·산·수파문을 수를 놓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장생문으로 나타난 구름문은 초화(草花)형태구름[28]과 만자[卍字]형태구름[29]으로 봉황을 둘러싸고 있다. 구름형태를 오색실로 수놓은 후 가장자리를 금사로 징금수를 둘렀다. 산문은<그림 7, 8, 9>를 통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파문 역시 <그림 7, 8, 9>를 통해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의 봉황흉배는 복합문양으로 봉황·구름·산·수파문 등의 수를 놓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장생문으로 나타난 구름문은 완자구름형태로 표현하였으며 봉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의 쌍학흉배는 조선시대 내외명부가 사용한 것으로 장생을 상징하는 학·불로초·구름·산·수파·바위문이 나타난다. 학문은 주문양으로 도식화된 학이 마주보는 대칭구도이다. 입에는 불로초를 물고 있으며 구름문은 초화구름형태로 학문을 둘러싸고 있다. 산은 삼산의 형태이고 수파문은 반원형의 형태로 대칭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금·은사로 수를 놓아 화려하게 장식했다. 바위문은 기암의 형태로 하단중심에 나타난다.

---

27) 박옥련(1986), 앞의 논문, pp.26-27

28) 유연한 소용돌이 곡선으로 구성된 구름문을 말한다. 출처-『한국전통문양집』 p.82

29) 구름의 형상을 (卍)자 모양으로 나타낸 것으로 중앙에 여의모양을 중심으로 양쪽에 구름날개가 팔랑개비처럼 돋히고, 상·하에는 여의 모양의 구름줄기를 붙여 서로 연속시킨 구름문을 말한다. 출처-『한국전통문양집』 p.78

3.2 에도시대

에도시대 여자예복은 공가여자의 예복인 쥬니히토에와 무가여자의 예복인 우치카케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쥬니히토에와 우치카케에서 나타난 장생문의 종류와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3.2.1 쥬니히토에(十二單)

쥬니히토에는 공가여자의 예복으로 에도시대 전기와 후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기의 쥬니히토에는 원색의 우치기를 중첩하여 착용하였다. 반면 후기의 쥬니히토에는 가사네이로메(重色目)[30]라고 하여 톤이 다운된 간색을 중첩하여 색을 배색하여 착용하였으나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 江戸時代前期の正装の公家女房　<그림 12> 江戸後期・正装の公家女房

출처: 일본풍속박물관,『日本女性服飾史』pp.119-120

전기의 쥬니히토에 <그림 11>을 살펴보면 가케오비(懸帶)는 녹색바탕에 봉황·당초문 등을 수놓아 장식하였다. 가리기누(唐衣)는 녹색바탕으로 국화문을 금박하였다. 중첩한 우치기(袿) 중 가장 겉옷인 우와기(表着)는 붉은색바탕으로 가리기누와 같은 국화문으로 금박하였다. 국화는 늦은 서리를 견디면서 청초한 모습을 잃지 않는 고상한 품위와 장수의 의미를 가진 문양이다.[31] 모(裳)는 흰색 바탕으로 봉황·오동나무·대나무문이 나타났으며 대나무문은 장생의 의미를 가진다. 모에 나타난 대나무문은 사실적인 형태로 뾰족한 잎과 가는 줄기를 녹색계열을 사용하여

30) 우치기나 히토에를 여러 벌 겹쳐 입을 때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다채로운 색상을 선택하였는다. 이러한 색상들이 깃과 소맷부리, 도련 등에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한다. 출처-『동아시아복식의 역사』p.133

31) 허균(2002), 앞의 책, p.80

모의 하단에 그려져 있다. 후기의 쥬니히토에 <그림 12>를 살펴보면 가케오비는 톤이 다운된 붉은색바탕에 봉황·오동나무문이 수놓아진 것으로 보여 진다. 가리기누는 붉은색바탕에 도식화된 나비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금박되었다. 주문양이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대칭구도를 이룬다. 나비문은 아름다움과 행복의 상징이며 장자의 호접몽과 관련하여 장(長, ちょう)의 음이 나비(蝶, ちょう)와 같아 장생의 의미를 가진다.[32] 모는 흰색바탕으로 봉황·오동나무·대나무문이 나타난다. 장생의 의미를 가진 대나무문은 전기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리기누에는 가문의 문장이 일정한 간격으로 금박이나 금직 되어 화려하면서도 근엄한 느낌을 주며, 모는 문양구성이 변함없이 봉황·오동나무·대나무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나무문은 사실적인 형태로 모의 하단을 장식하고 있다.

3.2.2 우치카케(打掛)

우치카케는 무가여성의 예복으로 밑단에 솜을 넣어 둘러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쥬니히토에와는 달리 우치기에 문양이 나타나고 다양한 색상·종류·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림 13> 白繻子地松竹梅宝尽模様打掛 <그림 14> 黒繻子地槍梅 模様打掛
<그림 15> 紅綸子地松竹梅君が代文字模様打掛
출처: 일본동경박물관

32) 이행화(2009), 앞의 논문, p.66

<그림 13>의 우치카케는 흰 수자지(繻子地)[33]에 총문양(総文様)[34]의 구성이며 복합문양으로 비대칭구도를 이루고 있다. 송죽매문과 청해파·바위·보우시(宝尽し)[35] 문을 섬세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소나무문은 동글동글 부채모양으로 줄기는 짙은 녹색을 사용하여 뻗어나가는 모습이다. 잎은 녹색계열로 입체감 있게 수놓았다. 대나무문은 사실적인 형태로 줄기는 옅은 녹색을 사용하여 오른쪽에 길게 뻗어 있고 뾰족한 잎은 짙은 녹색·금색·붉은색계열을 사용하여 우치카케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 매화는 소나무·대나무 잎 사이에 5개의 붉은 꽃잎 형태로 수놓았다. 청해파문은 파도모양을 단순한 형태로 묘사하고 길의 하단에 금색 물결과 붉은색의 물방울을 그려 역동감이 느껴진다. 바위문은 기암의 형태로 테두리 선을 붉은색으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그림 14>의 우치카케는 검정 수자지에 3단모양의 구성으로 어깨에는 소나무, 허리에는 매화, 밑단에는 대나무문이 나타난다. 소나무문은 소나무의 잎을 묘사하여 수놓았으며 매화문은 나뭇가지에 매화를 송이송이 가장자리만 수놓아 단순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나무문은 소나무문과 같이 잎사귀를 간단히 묘사했다. <그림 15>의 우치카케는 붉은 윤자지(綸子地)[36]에 총문양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3>의 우치카케와 같이 장생문이 화려하게 나타난다. 소나무는 둥근구름형태로 나타나며 대나무문은 나무줄기를 금으로 접박했으며 잎은 흰색·옅은 녹색·짙은 녹색 등을 사용하여 의복 전체에 나타난다. 매화문은 5개의 꽃잎을 도식화한 형태로 흰색·옅은 분홍색 등으로 아기자기하게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우치카케는 흰색·검은색·붉은색을 예복으로 송죽매문을 주문양으로 각종 색실과 금실로 장식한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37]

33) 수자지(繻子地)는 수자직으로 된 직물로 천의 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원단을 말한다.
34) 총문양(総文様)은 일반적으로 반 문양에 대해 고소데 전체에 문양을 배치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문양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전후좌우에 전개하는 무한의 퍼짐을 가진 구성을 말하는 것이다. 출처-『일본복식과 문양』 pp.156-157
35) 여의보주(如意寶珠)・요술 방망이・돈주머니・요술 삿갓・요술 도롱이 등 여러 가지 보배를 합쳐서 그린 문양이다.
36) 윤자지(綸子地)는 고운 생사로 무늬 있게 짠 윤이 나는 고급 견직물이다.
37) 北村哲郎(1999)『일본복식사』경춘사, pp.153-154

<그림 16> 鷹龍模様打掛 <그림 17> 藤松紅葉縫模様打掛
<그림 18> 浅葱綸子地竹鶴模様打掛 <그림 19> 桃色縮緬地瀧桜竹模様打掛
출처: 일본동경박물관

<그림 16>의 우치카케는 할문양(割文様)[38]으로 구성되어 매·용·소나무·청해파문을 흰색·금색·붉은색만을 사용하여 웅장하고 근엄하게 표현했다. 소나무문은 간결한 형태로 침엽수의 특징을 뾰족한 가닥으로 표현하여 솔방울과 함께 장식하여 금사로 징금수를 놓아 소매와 길의 상단을 장식해 근엄함을 더 해준다. 청해파는 길의 하단에 나타나며 금사로 파도와 물방울을 수놓아 생생한 역동감이 느껴진다. <그림 17>의 우치카케는 총문양으로 구성되어 소나무 한 그루를 표현해 뿌리와 줄기는 짙은 갈색으로 휘어져 올라가는 굴곡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이를 통해 우치카케에 나타난 소나무문은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와 색상으로 수를 놓거나 염색하여 장식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8>의 우치카케는 복합문양의 총문양으로 구성되었다. 장생의 의미를 지닌 대나무·학·바위문을 사용하여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대나무문의 줄기는 옅은 파란색·옅은 갈색·짙은 갈색 등을 사용하여 굵기에 차이를 주어 표현하였다. 잎은 줄기에 사용된 색상에 붉은색을 더해 부분적으로 강조를 주었다. 학문은 다양한 형태로 다른 문양과 조화로운 색상을 사용해 회화적인 느낌을 준다. 바위문은 길의 밑단에 배치하여 명암을 준다. <그림 19>의

38) 할문양(割文様)은 허리를 경계로 하여 위와 아래를 다른 문양으로 배치하는 구성이다.
출처-「기모노 문양을 활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p.63

우치카케는 분홍색 축면지(縮緬地)[39]에 총문양으로 구성된다. 주문양인 벚꽃나무와 대나무・청해파・구름문을 부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대나무문은 길의 밑단에 배치하여 잎사귀만 뾰족한 형태로 나타났고 녹색계열로 염색하였다. 청해파문은 흐르는 폭포를 역동적으로 묘사하였고 길의 하단에 일렁이는 물결모양을 그려 넣었다. 구름문은 간결한 형태로 길의 허리부분에 옅은 갈색으로 가장자리 형태만 표현했다. 부문양을 은은한 배경으로 주문양이 두드러져 봄에 피는 벚꽃의 생생함이 느껴진다.

<그림 20> 納戸綸子地亀甲橘模様打掛 <그림21> 白綸子地角出亀甲藤文字模様打掛
<그림 22> 鼠地唐織地花文網目繫八橋胡蝶模様打掛
출처: 일본동경박물관

<그림 20>의 우치카케는 파란색 윤자지에 총문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생문인 귀갑·귤문이 나타났으며 귀갑문은 거북의 등껍질 모양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거북은 중국에서 북방을 지키는 사신을 의미하며 일본에서는 만년을 사는 거북을 장수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귀갑문은 금색과 흰색으로 육각형을 연결한 형태로 귀갑문 안쪽에 화문(花紋)을 수놓아 입체적으로 나타난다. 귤문은 장수와 복을 의미하는 불수감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귤문은 녹색·귤색·분홍색·흰색 등으로 나무에 달려있는 아기자기한 형태로 장식하였다. <그림 21>의 우치카케는 흰색 윤자지에 총문양으로 구성되어 귀갑문은 주황색의 수와 금색의 접박으로 나타난다. 뿔이 난 귀갑문의 형태로 아기자기한 화문같은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이 귀갑문은 고급스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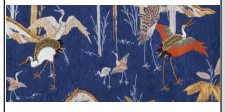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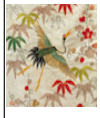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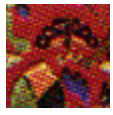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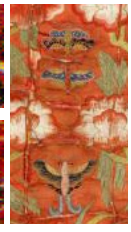
39) 축면지(縮緬地)는 견직물의 일종으로 꼬임을 준 실로 짠 바탕이 쪼글쪼글한 비단을 말한다.

느낌과 아기자기한 느낌과 같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의 우치카케는 회색 당직지(唐織地)[40]에 요문양(腰文樣)[41]으로 구성하였다. 나비문은 날아다니는 형태로 자유롭고 다채롭게 표현하여 차분한 우치카케를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장식하였다.

4. 한-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 비교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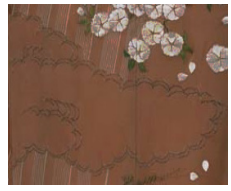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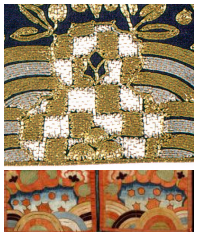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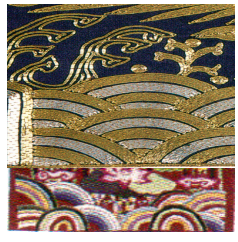
근세 한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의 종류로는 조선시대 여자예복에 나타난 학·나비·매화·구름·바위·수파문·불로초·복숭아·산·수(壽)·복(福)문과 에도시대 여자예복에 나타난 학·나비·매화·구름·바위·청해파·거북·소나무·대나무·국화·귤문이 있다. 그 중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장생문인 학·나비·매화·구름·바위·수파문의 특징을 <표 2>과 같이 정리하여 비교 고찰하였다.

<표 2> 근세 한일 여자예복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장생문 비교고찰

	조선시대	에도시대		조선시대	에도시대
학문		 	나비	 	
장생문특징	· 날아다니는 형태 · 주문양, 대칭구도 · 금사로 징금수	· 사실적인 형태 · 의복과 조화로운 색상을 사용 · 날아다니거나 노니는 형태	장생문특징	· 단순한 형태 · 날아다니거나 마주 보는 대칭구도 · 오색실로 자수	· 단순한 형태 ·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대칭구도 · 금박, 염색, 자수
비교고찰	· 조선시대는 날아다니는 형태지만 에도시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 · 에도시대의 학문은 다양한 색상사용		비교고찰	· 양국의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색상으로 화려하게 묘사함 · 조선시대에 비해 에도시대 나비문이 더욱 자유로운 구도로 나타남	

40) 당직지(唐織地)는 당(唐)나라에서 전래한 직물로 주실에 오색으로 누인 명주실이나 금실을 섞어 짜서 꽃·새 등의 무늬를 돋보이게 한 것이다.

41) 요문양(腰文樣)은 일정폭으로 허리부분만을 다른 색목이나 문양을 새긴 것을 말한다.
출처-『일본복식과 문양』p.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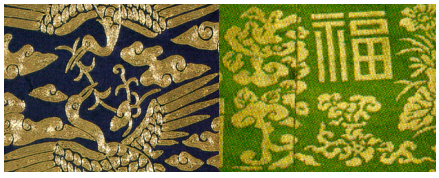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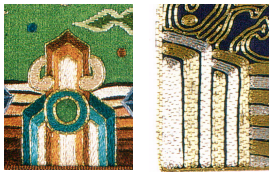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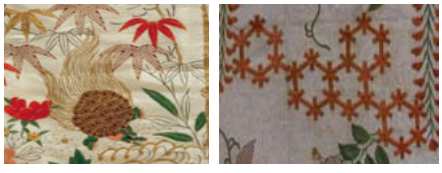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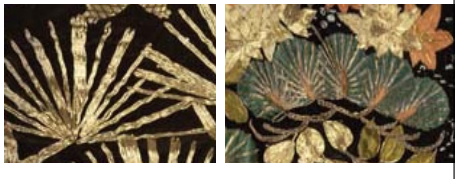
매화문			구름문		
장생문특징	· 5개 꽃잎 · 오색실로 장식 · 금박, 자수기법	· 단순한 형태 · 5개 꽃잎을 다양한 형태로 장식	장생문특징	· 단순한 형태 · 금박, 금사, 오색실 · 비대칭 구도의 바탕문	· 단순한 형태 · 바탕문 · 비대칭 구도 · 수를 놓거나 염색
비교고찰	· 조선시대의 매화문은 부문양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에도시대에는 송죽매와 함께 주문양으로 주로 사용됨		비교고찰	· 조선시대에는 흉배, 보 등에 구름문을 바탕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에도시대에는 그 빈도가 적음	
바위문			청해파		
장생문특징	· 기암형태 · 금·은사, 오색실 · 흉배, 의복의 하단에 위치, 대칭구도	· 기암 형태 · 의복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색상 · 의복의 하단에 위치, 비대칭구도	장생문특징	· 반원형·파도·물방울 · 금·은박, 오색실 · 흉배, 의복의 하단에 위치, 대칭구도	· 파도·물결·유수형태 · 다채로운 색상의 비대칭구도
비교고찰	· 조선시대는 주로 대칭구도, 수파문의 중앙에 위치 · 에도시대에는 비대칭구도, 명암을 넣어 묘사하는 경우가 많음		비교고찰	· 조선시대는 반원형에 오색실로 수놓음 · 에도시대는 흐르는 물결을 묘사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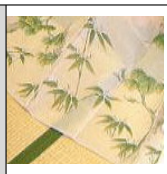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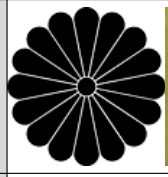
이처럼 조선시대 장생문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정형화 된 문양을 보·흉배·스란단·예복의 하단 등 특정위치에 대칭구도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에도시대 장생문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임에도 다양한 형태와 색상·기법을 이용하여 예복 전체에 자유롭게 배치해 한 폭의 그림과 같이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조선시대 여자예복에만 주로 나타나는 장생문은 불로초·복숭아·산·수·복문이 있으며 에도시대 여자예복에 주로 나타나는 장생문은 거북·소나무·대나무·국화·귤문이 있다.

이와 같은 문양을 <표 3>를 통해 고찰하였다.

<표 3> 양국의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

	문양	예복에 나타난 장생문	장생문 특징
조선시대	불로초		· 단순한 형태 · 금박, 금사를 이용한 직금·징금수 · 학이 물고 있는 형태나 일정한 간격 으로 규칙적 배열로 나타남
	복숭아		· 단순한 형태 · 금박, 금사를 이용한 직금, 오색실을 사용한 자수기법
	산		· 삼산형태 · 금・은사, 다채로운 색을 이용한 자수 · 흉배, 의복의 하단 수파문 중심에 위 치하며 대칭구도를 이룸
	수복		· 장수자, 장복자의 형태 · 주로 금박으로 나타나며 규칙적인 배열을 보임 · 의복 전체, 스란단의 부분에 나타남
에도시대	거북		· 거북의 형태, 귀갑문 형태 · 녹색, 갈색계열의 색상, 의복에 어울 리는 다양한 색상 · 거북의 형태는 의복의 하단, 귀갑문은 전체나 부분적으로 배치됨
	소나무		· 사실적, 도식화된 다양한 형태 · 의복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색상 · 주문양, 바탕문양으로 두루 사용 · 조선시대와 달리 여성예복에 나타남 · 송죽매로 구성을 이뤄 함께 장식

에도시대	대나무		· 사실적, 도식화의 다양한 형태 · 의복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색상 · 조선시대와 달리 여성예복에 나타남 · 송죽매로 구성을 이뤄 함께 장식
	국화		· 사실적, 단순한 형태로 나타남 · 금박, 의복과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 · 금박, 오색실로 수놓음
	귤		· 귤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색상 · 줄기, 꽃, 열매, 잎을 염색 · 느낌이 강함

이와 같이 조선시대 여자예복에 주로 나타난 문양은 주로 바탕문양으로 사용되었으며 학·불로초, 산·바위·수파문, 수·복문과 같이 함께 짝을 이뤄 표현하는 문양이 많다. 또한 정형화된 형태와 규칙적인 배열 및 특정위치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에도시대 여자예복에 주로 나타나는 장생문은 거북·귀갑문, 소나무·대나무문과 같이 조선시대 여자예복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동물문양, 식물문양이 많다. 이는 유교의 영향으로, 곧은 선비와 군자를 상징하는 문양은 여자예복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화·귤문 등의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문양표현이 나타나 정형화된 조선시대 예복의 문양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론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영향으로 장생문을 받아들인 후 같은 의미로 사용했지만 각국의 배경에 따라 형태, 색상, 구도, 표현기법을 다르게 하여 각 민족의 독자적인 문양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세 한·일의 시대적 배경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을 비교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생문은 고대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한국은 삼국시대에, 일본은 나라시대에 전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의 장생문은 중국의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종류와 의미는

유사하게 사용된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부터 계속된 외세의 침략, 전쟁과 사회혼란 속에서 장생의 염원이 깊어졌으며 에도시대는 민속신앙과 자연신앙을 기반으로 지진·화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생사상을 추구하며 장생문을 널리 사용했다.

둘째, 근세 한·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은 동물문양으로 학·나비문, 식물문양으로는 불로초·매화·복숭아문, 자연문양으로 구름·산·바위·수파문, 글자문으로 수(壽)·복(福)문이 나타난다. 학문은 주문양으로 도식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불로초문는 학이 입에 물고 있는 형태로 표현된다. 산·바위·수파문은 주로 바탕문으로 나타나며 보·흉배·예복의 하단에 위치하고 대칭구도로 나타난다. 수·복문은 예복의 전체나 스란단에 규칙적인 배열로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장생문은 보·흉배·스란단과 같이 예복의 부분을 장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삼과 당의에는 수·복문이 규칙적인 배열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외적으로 활옷에는 예복 전체에 오색실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나타난다.

에도시대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은 동물문양으로 학·거북·나비문, 식물문양으로는 소나무·대나무·국화·귤·매화문, 자연문양으로는 구름·바위·청해파문이 나타난다. 학·나비·귤·국화문은 예복 전체에 다양한 형태와 색상으로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반면 거북·바위문은 예복의 하단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대칭 구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나타난다. 청해파문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유수(流水)의 형태로 물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에도시대 여자예복의 장생문은 주로 예복 전체에 나타나며 문양의 형태가 다양하고 의복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표현된다.

셋째, 근세 한·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을 비교 고찰하면, 양국의 여자예복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장생문은 학·나비·매화·구름·바위·수파문 등이다. 학문은 조선시대는 날아다니는 형태가 주로 나타나지만 에도시대는 형태, 색상이 다양하고 조화롭게 표현된다. 나비문은 양국에서 다양한 색상으로 화려하게 표현되나 에도시대 예복에서 더욱 자유로운 배치로 장식되어 나타난다. 매화문은 에도시대에 송죽매문의 주문양으로 나타나며, 구름문은 양국에서 주로 바탕문으로 사용된다. 바위문은 기암괴석의 형태로 조선시대에는 수파문과 짝을 이뤄 나타났고, 수파문은 조선시대의 경우 반원형 오색물결로 에도시대에는 유수형태로 표현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장생문은 단순한 형태의 정형화된 문양을 보·흉배·스란단·예복의 특정위치에 배치된 경우가 많았으나 에도시대의 장생문은 다양한 형태로 묘사하거나 자유롭게 배치되어 한 폭의 그림과 같이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자예복에만 주로 나타난 문양은 불로초·복숭아·산·수(壽)·복(福)문 등이다. 이와 같은 문양은 주로 바탕문양으로 사용되며 학·불로초, 산·바위·수파문, 수·복문과 같이 함께 짝을 이뤄 표현하는 문양이 많다. 또한 정형화된 형태로 규칙적인 배열과 특정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에도시대 여자예복에만 주로 나타난 문양은 거북·소나무·대나무·국화·귤문양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양 중 거북·귀갑문, 소나무·대나무문은 곧은 선비와 군자를 상징해 조선시대 여자예복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에도시대에는 국화·귤문 등의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문양표현이 나타나 정형화된 조선시대 예복의 문양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의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은 중국의 신선사상에서 유래되어 비슷한 의미와 형태, 종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문양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장생문도 조선시대의 장생문은 유교의 영향으로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용도인 보, 흉배, 스란단 등에 정형화된 형태가 특징이다. 또한 오색실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한 활옷에도 문양의 종류와 배치는 다채롭지 않다. 이에 비해 에도시대의 장생문은 송죽매문을 제외하고 복합문양이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문양의 색상도 예복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색상이 쓰였다. 이는 에도시대의 유리문화의 영향으로 의상경쟁이 심화되어 더욱 다채로운 색상으로 화려한 문양을 복식에 장식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근세 한·일 여자복식의 특징으로 복식의 실루엣에 변화를 둔 조선시대 여자복식과 달리 문양과 색상에 다양성이 나타난 에도시대 특유의 복식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丸山伸彦(2007)『江戸のきものと依生活』小學館
菊地ひと美(2012)『江戸依裝図鑑』東京堂出版
長崎(2006)『きもの文樣鑑』平凡社
藤原久勝(2004)『キモノ文樣事典』淡交社
강해숙(2012)「근세 한·일 예복에 나타난 문양을 활용한 네일디자인 연구」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숙(2004)『한국복식문화사전』미술문화
박옥련(1986)「한국 십장생문양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옥련(2000)『한국전통복식문양사』형설출판사
北村哲郎(1999)『일본복식사』경춘사
상기호 외(2006)『한국전통문양집』한림출판사
심영옥(2004)「십장생도에 내재된 長壽吉祥의 상직적 이미지 연구」『동양예술』Vol.8
심화진·윤혜성(2007)「한·일 전통복식에 표현된 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한복문화학회 학술대회』
양지나(2010)「에도시대 우키요에 복식에 표현된 문양과 색채」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하정·이상은(2010)「조선후기 유물에 나타난 십장생문의 조형성 분석-자수품을 중심으로-」『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Vol.12 No.1
이행화(2009)「우키요에에 나타난 고소데의 조형적 특성연구」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진영(2014)『일본사의 이해』현학사

최선은(2002)「한국과 일본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비교-조선후기와 에도시대를 중심으로」『동양예술』vol.6
허균(2002)『전통문양』대원사
허은주(2005)『日本服飾史와 生活文化史』어문학사
홍나영·신혜성(2011)『동아시아 복식의 역사(한·중·일)』교문사
동경국립박물관 http://www.tnm.jp/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要旨>

근세 한 · 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 비교고찰

본 논문에서는 근세 한·일 여자예복에 나타난 장생문양을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여자예복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장생문양은 학·나비·매화·구름·바위·수파문 등이다. 학문은 조선시대 흉배의 주문양으로 날아다니는 형태였으며 에도시대의 학문은 날아다니거나 바위 위를 노니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나비문은 양국의 예복에서 날아다니는 형태로 다양한 색상으로 아름답게 나타났으며, 매화문은 5개의 꽃잎이 묘사된 형태로 표현했다. 구름문은 주로 바탕문양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바위문은 기암괴석의 형태로 예복의 하단에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수파문은 조선시대에는 반원형의 오색물결의 표현이 많고 에도시대에는 흐르는 유수형태가 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 여자예복에만 주로 나타난 문양은 불로초·복숭아·산·수·복문 등이다. 불로초문은 학이 물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며 산문은 삼산형태로 보·흉배·예복의 하단에 수파문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수·복문은 주로 금박, 금직으로 규칙적인 배열로 나타난다. 에도시대 여자예복에만 주로 나타난 문양은 거북·소나무·대나무·국화·귤문 등이 있다. 거북문은 거북문양과 기하학적인 귀갑문으로 나타난다. 소나무·대나무문은 송죽매로 묶어 함께 표현한 경우가 많았으며 국화·귤문은 아기자기하게 장식하여 표현하였다.

A comparative contemplation on the longevity patterns appearing on the formal dresses of modern age ladies in Korea and Japan

This study compared and contemplated the longevity patterns appearing on the formal dresses of modern age ladies in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the common longevity patterns appearing on the formal dresses of ladies in Korea and Japan are; crane pattern, butterfly pattern, ume flower pattern, cloud pattern, rock pattern and wave pattern. The flying crane pattern was the main pattern at the embroidered patch at breast and back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crane pattern during the Edo age was in various forms including flying cranes or cranes taking a stroll on the rock. The flying butterfly pattern in beautiful multicolor was used in the formal dresses of the two countries; while the ume flower pattern was described in the form of five petals. The cloud pattern was mostly used as the base pattern. The rock pattern was mostly used in the lower end of the formal dress in the form of oddly formed rocks and strangely shaped stones. The wave pattern was expressed in semicircular five-color waves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le it was mostly expressed in the form of flowing water during the Edo age.

The elixir plant pattern, peach pattern, mountain pattern, longevity (壽) pattern and good fortune (福) pattern appear only on the formal dress of Joseon age ladies. A crane holds elixir plant in its beak in the elixir plant pattern. The three mountains pattern is located in the center of wave pattern at the lower end of the ‘bo’, ‘hyungbae’ or formal dress. The longevity (壽) pattern and good fortune (福) pattern are expressed in gilt or gilt fabric with regular arrangement. The turtle pattern, pine tree pattern, bamboo pattern, chrysanthemum pattern and tangerine pattern appear only on the formal dress of Edo age ladies. The turtle pattern is expressed both as turtle pattern and geometric hexagonal pattern. The pine tree pattern and bamboo pattern mostly have pine tree, bamboo and ume flower altogether. The chrysanthemum pattern and tangerine pattern are expressed harmoniously.